

중국 양췌 현의 가마우지 낚시

중국 남부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리장(漓江) 강은 선계가 여기다 싶을 만큼 수려한 풍경을 풀어놓는다. 리장의 한 길목인 양췌(陽朔) 현에서는 고대부터 전해진 전통에 따라 가마우지 새와 함께 물고기 잡는 모습을 볼 수 있다.

Cormorant Cruise

The Li River, which runs its course past dreamlike scenery in southern China, is the stage for a time-tested partnership between cormorants and local fishermen.





뒤쳐진 이들을 기다리며 선창에 묶여 있는 배에 앉았다. 광시좡족자치구가 자랑하는 카르스트 지형이 빚어낸 웅장한 산봉우리 위로 햇살이 스리지며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희미하게 남은 여광(餘光)과 함께 대자연이 펼치는 한 편의 그림자극 같았다. 절경에 마음을 빼앗긴 사이, 우리의 짧은 여정을 책임질 선장이 마침내 배의 밧줄을 풀고 대나무 장대로 강바닥을 밀었다. 우리 배는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리장 강을 따라 북북동 방향으로 서서히 나아갔다. 세속의 번잡함이 가득한 양쉬의 변화가를 뒤로한 채 어둠이 내려앉은 강으로 들어서자, 세계에서 가장 극적인 지형을 이루며 늘어선 산봉우리가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별빛이 반짝이는 밤하늘 아래를 달리다 보니, 왼편 강둑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반짝였다. 우리가 탄 배의 선장과 어부가 주고받는 신호였다. 강을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 불빛이 점점 더 선명해지며 그 실체를 드러냈다. 수수한 옷차림에 원뿔의 대나무 모자를 쓴 어부가 대나무 배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짙은 어둠에 눈이 익숙해질 무렵, 배 주변의 물속에서 아래위로 움직이는 물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가마우지는 수세기 동안 아시아와 유럽 일부 지역에서 낚시에 이용됐다. 물론 오늘날에는 가마우지 낚시보다 생계를 유지하는

As we sit aboard the faux bamboo boat at the dock waiting for latecomers, the last of the day's light slowly ebbs away, throwing the enormous karst peaks that this part of the Guangxi region is famed for into darkness. What light remains creates a shadow theater performance of immense proportions by Mother Nature.

Our captain for this short voyage eventually casts off with a final shove of his bamboo pole. The engine starts and we begin to move north-northeast up the Li River. As we head into the night, leaving behind the organized chaos that is Yangshuo's West Street, the ragged peaks on both sides of the river loom over our little boat.

Then the night sky begins to flash intermittently ahead of us, and lanterns appear on the riverbank. The flashes are torch signals between tour boats like ours and the fisherman we have come to see. As we continue upriver, a lamp comes on in the darkness, indicating our rendezvous point. Like an understated gondolier, our fisherman stands on a bamboo raft dressed in dark garb and a conical bamboo hat. Bobbing in the water nearby and tethered to

더 손쉬운 방법이 수도 없이 많다. 그럼에도 리장 강의 어부들은 이 오래된 낚시법의 명맥을 여전히 잇고 있다. 지금은 물고기를 팔아 받는 돈보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관광객에게 낚시하는 과정을 시연하고 챙기는 수입이 더 쏙쏙하지만.

오랜 시간 훈련된 탓인지 가마우지는 어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아는 듯했다. 펫목이 움직이자 가마우지는 바로 물고기를 쫓아 잠수했다. 수심이 얇고 물이 맑은 데다 손전등이 물속을 비춰 가마우지의 뛰어난 수영 실력을 선명히 볼 수 있었다. 낚시에 성공한 가마우지는 부리 사이에 끼운 물고기를 대부분 배에 부려놓는데, 때로는 물고기를 삼키기도 한다. 그러나 어부가 목에 묶어둔 줄 때문에 넘길 수 있는 생선 크기는 정해져 있다.

배에 앉아 가마우지가 낚시하는 경이로운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배는 방향을 바꿨다. 우현에 앉은 관광객들에게도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어부가 비쭈 손전등에서 나오는 불빛이 무대 조명처럼 빛나며 낚시에 몰두한 작은 주인공의 움직임을 환히 밝혔다. 구경을 끝내자 우리가 탄 배는 인근의 강둑으로 다가갔다. 영어를 잘 못할 거라는 내 짐작과 달리 선장은 간결하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늘 하는 말인 듯 읊었다. “이제 강둑으로 이동해서 사진을 찍겠습니다”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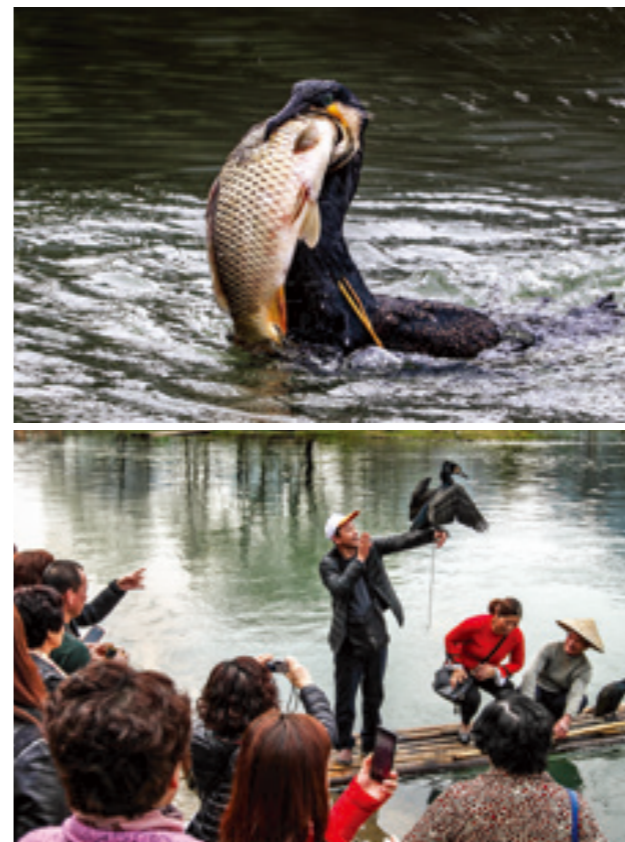
the boat is his flock of expert fishers.

Cormorants have been used to catch fish in Asia and parts of Europe for centuries, and although these days there are easier ways to earn a living, the tradition endures. The fishermen on the Li River earn at least part of their living from snaring tourists instead of fish.

The birds know the routine well and soon go to work, diving and gliding under the water, relentlessly searching for fish. They surface from time to time, sometimes to be scooped up onto the raft to deposit their cargo and other times to swallow their prize. A snare or ring around the neck restricts the size of the fish they can swallow.

리장 강이 지나는 길목에 자리한 양쉬에서 바라본 수변 풍경. 운무에 휩싸인 산봉우리가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왼쪽 페이지). 가마우지가 부리로 물고기를 낚는 과정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양쉬를 찾는다(아래).

Uniquely shaped karst hills tower above both sides of the Li River, which runs past the town of Yangshuo in the Guangxi region of China (opposite). Cormorant fishing, a traditional, centuries-old technique, is sustained largely by tourism (below).





양취의 한 어부가 잘 훈련된 가마우지를 배에 싣고 강으로 나오자, 새들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물로 뛰어들어 낚시를 시작한다(왼쪽).

The small number of fishermen in Yangshuo who still rely on tame cormorants to do their fishing use a bamboo cane to help the birds return to the boat with their catch (left).

SHOWTIME We sit and watch as the cormorants go about their routine. The light from the fisherman’s lamp shines a spotlight of sorts on the stars of the show as they carry out their work. Our captain, who I presume cannot speak much English, begins his succinct but confident patter: “Now we go to the riverbank for some photographs.”

This is where ancient tradition meets modern tourism.

The fisherman sits on the front of his raft on the pebbly bank of the Li River and places one of the well-trained birds on his left arm. He then pats a spot next to him on the bow. “Come,” he says. One by one everyone sits, as trained as the birds, it seems, for photographs.

The majestic bird is considerably bigger than it appears in the water. With its hooked bill and piercing eyes, it sits happily on the arms of the night’s visitors. The fisherman puts his hat on everyone’s head. As the last photographs are being taken, some people drop tips into the fisherman’s basket. It contains the humble catch of the day — half a dozen medium-size fish.

We glide backwards in the calm water as our captain pushes off from the shore. But before we make the turn for “home” and the engine kicks in, the fisherman bends over to tend to his birds or perhaps to count what has been left in his basket. As we move further and further away, he and his birds are slowly enveloped by what is now a dark but starry night.

I reflect on how cormorant fishing on the Li River has evolved from a livelihood to a signature tourist attraction — the practice and the incredible landscape were immortalized on the reverse side of the 20 yuan note in 1999. Many of the fishermen are quite advanced in years, though, and the art may not be passed on to future generations. I count myself lucky that I was able to see it for myself — and pose for photos with the fisherman and his helpers. **By Rob McGovern Photographs by Alexis Duclos**

공연 시간 우리 배를 뒤따라온 어부가 자갈이 깔린 강둑에 배를 대고 자신의 왼팔에 잘 훈련된 새 한 마리를 올려놔다. 그리고는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우리 배를 향해 소리쳤다. 위풍당당한 가마우지를 가까이서 보니 물속에 있을 때보다 몸집이 더 컸다. 같고리 모양의 부리와 날카로운 눈매를 한 새가 밤에 찾아온 관광객들의 팔에 암전히 얹아 있는 동안 어부는 자신의 모자를 사람들의 머리에 차례차례 씌워줬다. 사진을 찍을 때 어부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러 온 게 아님을 잘 아는 듯 시선을 돌렸다. 마지막 사람까지 사진 찍기를 마치자, 몇몇 이들은 어부의 바구니에 틱을 넣었다. 그 바구니에는 오늘 낚아 올린 생선 몇 마리가 담겨 있었다. 타고 온 배에 다시 올라타니 가마우지 다섯 마리가 나란히 서 날개를 활짝 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공연의 일부분이었다.

선장이 강가의 진흙 속에서 두세 말자국 배를 밀어내자 우리가 탄 배는 조용히 물속으로 미끄러졌다. 출발지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배를 돌려 엔진에 시동을 걸기 전, 새들을 돌보는 듯 한껏 허리를 구부린 어부의 뒷모습을 봤다. 배가 점점 멀어지면서 어부와 그의 새들이 별이 빛나는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다.

나는 짧은 공연이 남긴 감상을 멈추고 시내에서 먹을 저녁거리와 곧 떠날 시골 여행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내일 아침쯤이면 이 전통 깊은 가마우지 낚시를 보기 위해 관광객을 실어 나르던 배 대신 관광선이 이 강을 오르내리고 있으리라. 리장 강에서 행하는 이 전통 낚시는 이제 양취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발전했고, 이 낚시법과 이곳의 빼어난 지형은 1999년 20위안 지폐의 뒷면에 새겨지면서 중국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부분으로 남았다. **글 롭 맥거번 사진 알렉시 뒤클로**

찾아가는 길

비행기를 타고 중국 광둥성(廣東省) 성도인 광저우(廣州)로 이동한 후, 광저우 남부 기차역에서 G 또는 D 기차를 타고 3시간여 이동하면 광시좡족자치구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 구이린(桂林)에 도착한다. 또 다른 방법은 밤에 출발해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하는 K 기차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동 시간은 총 11시간 소요된다. 구이린에서 양취까지는 버스로 1시간 30분 거리지만, 여러 번 정차하는 버스의 경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광저우와 양취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버스도 있다. 총 8시간 소요되며, 시간을 아끼려는 여행객을 위해 2층 침대로 꾸민 야간 버스도

운행하니 시간이 촉박하다면 이 버스를 이용하자.

추천 숙박지

관광 명소로 변한 양취 중심가에는 다양한 수준의 호텔과 민박집, 호스텔이 산재해 있다. 성수기, 특히 공휴일을 앞둔 기간에는 사전 예약이 필수다. ‘양취 비렌장징 호텔(www.greenlotushotel.com)’은 여러 형태의 객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기념품 가게, 식당, 찻집, 숙소가 밀집된 옛 거리 시제(西街)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자리한다. ‘양취 성디 호텔(www.yangshuomountainretreat.com)’은 시 외곽의 강가에 위치한 부티크 호텔로 수려한 경관을



대한항공은 광저우로 매일 운항합니다. Korean Air flies Incheon ↔ Guangzhou daily.

GETTING THERE

Travelers can fly to Guangzhou and then travel to Guilin in about three hours by taking a G or D train from Guangzhou South Railway Station. The K train, which departs from Guangzhou Railway Station, takes about 11 hours. From Guilin it is a 90-minute bus ride to Yangshuo, though some buses take longer due to frequent stops. There are also buses that travel directly to Yangshuo from Guangzhou.

WHERE TO STAY

As a tourist hotspot, the town center of Yangshuo has a wide range of hotels, guesthouses

and hostels. During busy times, particularly in the lead-up to public holidays, booking ahead is essential to secure a room. Yangshuo Green Lotus Hotel (www.greenlotushotel.com) offers a wide variety of rooms — many with a view of the river — and is situated a short walk from West Street, which these days is packed with souvenir shops, restaurants and hostels. Outside of town, Yangshuo Mountain Retreat (www.yangshuomountainretreat.com) is a boutique riverside hotel with a restaurant that serves local delicacies, including battered shrimp from the Li River.

자랑한다. 현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 또한 이곳을 찾는 이유다.

추천 먹을거리

양취 어디를 가나 만날 수 있는 음식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소고기 육수에 편육 몇 점을 곁들인 구이린식 쌀국수다. 기호에 따라 넣어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양념이 팔려 나온다. 또 하나는 리장 강에서 잡은 잉어를 튀긴 후 현지 맥주와 간장, 토마토, 생강, 고추, 그 외 몇 가지 재료를 넣고 한데 끓인 ‘비어 피시(맥주 생선)’다.

지역 명소

암벽 등반 코스만 수백 개에 이르는 양취는 전 세계 등반가들에게 꿈의

장소로 통한다. 암벽을 타고 오르지 않고 전경을 둘러보고자 한다면 웨량산(月亮山)을 추천한다. 마을 외곽을 둘러보고자 한다면 호텔에서 자전거를 빌려 다양하게 마련된 코스를 따라 한 바퀴 돌아보자. 단, 시골이라 길이 험하니 자전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출발한다. 그 외에 관광 코스로 둘러볼 만한 동굴이 여러 곳 있다. 한편 시가지에는 쇼핑거리, 구경거리가 가득하다. 양취를 대표하는 전통 거리인 시제는 14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특히 청나라 말에 서양 상인들이 대거 들어와 살아서인지 중국의 동양풍 분위기와 서양의 분위기가 어우러져 색다른 풍경을 자아낸다.



WHAT TO EAT

There are two main dishes that seem to appear everywhere in Yangshuo. The first is Guilin rice noodles, a simple dish of cooked rice noodles with sliced beef and broth. Several condiments can be used to flavor the dish to your liking, including chopped green onion, chili flakes and pickled vegetables. The other local delight, beer fish, is widely served on West Street and elsewhere. Li River carp is fried and then stewed with local beer, soy sauce, tomatoes and usually some ginger and chili, as well as a few other ingredients.

WHAT TO DO

With hundreds of rock climbing routes documented, Yangshuo is something of a climber’s dream. Whether one aims to rock climb or simply take in the panoramic view, one of the best places to do so is at the iconic Yueliang Shan (Moon Hill). There are also several cycling routes that offer a welcome trip out of town (bikes can be hired from most hotels, but be sure your bike is roadworthy before venturing into the countryside). On top of this, there are also several caves in the area worth checking out. In the city, shopping and browsing opportunities abound.